

짚따, 짚따!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구성안
장충고등학교 국어교사 권희린

Bkkm Un-eo, Se-sang-e Tae-keul Geol-da

(청소년 교양)

책 소개

하루가 멀다 하고 신조어가 쏟아진다. 급식을 먹는 세대, 즉 10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체인 ‘급식체’가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잠식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세대 차이일까,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일까. 어쩌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차곡이 기반을 쌓아올린 언어문화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듯하다.

청소년기는 ‘언어의 파괴력’이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시기다. 『B급 언어, 세상에 태클 걸다』는 2013년에 출간되어 화제를 모았던 『B급 언어』의 개정판으로 청소년의 말, 그중에서도 ‘비속어’에 집중하는 책이다. 작가는 “모르면 나이 든 내 탓”을 해야 하는 각종 신조어 대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비속어들을 엄선하여 추렸다. 왜 이런 말을 쓰게 되는지, 그 어원을 살펴보고 좀 더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고민하려면 시대와 세대를 통과하여 ‘장시간 우려낸’ 비속어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작가는 비속어의 어원과 의미를 낱알이 ‘까발리면서’ 동시에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재치 있게 표현된 이주운 작가의 개성 가득한 그림들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 책은 비속어나 혐오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언어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스로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평소 사용했던 비속어들의 어원을 알아보고, 그 언어들 대신할 수 있는 대체어에 대해 고민하면서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돕는다.

이 책에 언급된 비속어들을 읽고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만, 책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평소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그 어원에 대해 조사하여 PPT 발표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면 좀 더 공감하면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십대 #청소년 #비속어 #어원 #대체어 #언어습관



학습 목표

-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적인 비속어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다양한 주제별 미디어를 통해 평소 자신의 언어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다.
- 친구들과의 비속어 어원 발표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내용	비고
1	읽기 전	[활동1] 우리가 자주 쓰는 비속어는? [활동2] 비속어 말할 때의 느낌 경험하기 [활동3] 학생들의 비속어 실태 확인하기	모듬 활동
2	읽기 중	[활동1] 밑줄 치면서 읽기	
3	읽기 중	[활동2] 밑줄 치면서 읽기	
4	읽기 후	[활동1] 비속어 5개 골라 빈칸 채우기 [활동2] 모듬별로 토론하기 [활동3] 우리들의 모습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모듬 활동
5	읽기 후	[활동4]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비속어 확인하기 [활동5] 그 외의 비속어 관용적 표현 알아보기	
6	읽기 후	[활동6] 소통을 위한 고운말 고쳐쓰기 [활동7] 대체어 찾아보기 [활동8] 우리만의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만들기	모듬 활동
7	영상 제작	[활동1] '아무 비속어 챌린지' 주제로 비속어 소개하는 PPT/영상 제작하기	모듬 활동
8	영상 제작	[활동2] 모듬별/개인별 UCC 발표	모듬 활동

1차시

■ 읽기 전 활동 ① 우리가 자주 쓰는 비속어는?

모둠별로 앉아 화이트보드에 (혹은 칠판에 나와서) 내가 평소 말하는 비속어에 대해 적어 봅시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비속어를 한눈에 확인하고 우리의 언어습관을 일시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 읽기 전 활동 ② 비속어 말할 때의 느낌 경험하기

비속어를 사용한 시와 사용하지 않은 시를 비교하며 읽어 봅시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한 노래의 랩 가사를 자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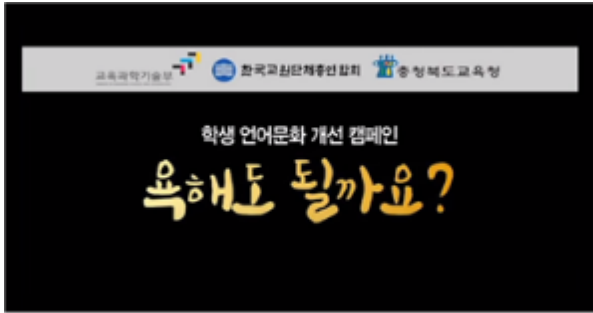
출처_2013년 상수역 '그문화갤러리' 상년전

김춘수 <꽃>	비속어가 포함된 김춘수 <꽃>
<p>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p>	<p>내가 너의 이름을 졸라게 불러주었을 때 너는 씨발 나에게로 와서 족가튼 꽃이 되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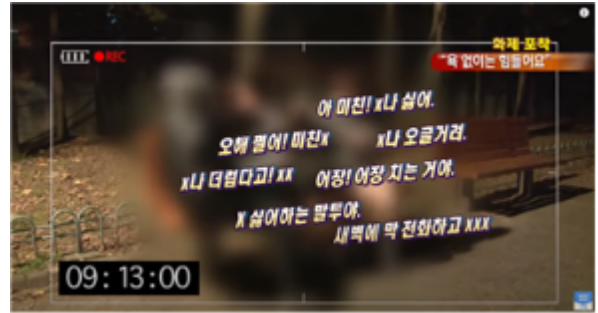
1. 원래의 시와 비속어가 포함된 시를 번갈아 읽어 봅니다.
2. 느낌이 어떨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읽기 전 활동 ③ 학생들의 비속어 실태 확인하기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두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EBS <욕해도 될까요?>
<https://youtu.be/0FVli1MZ-Lo>



KBS 뉴스 [화제포착] <욕설, 비속어에 증독된 청소년들>
<https://youtu.be/62CAJTbaC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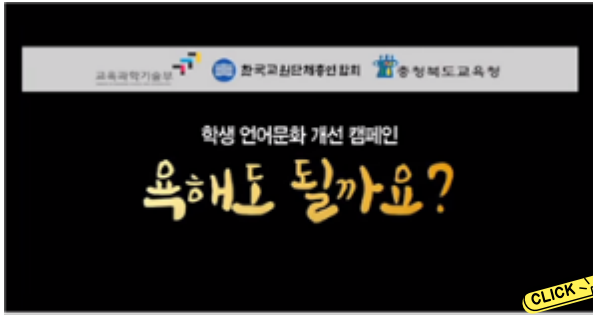
1. 영상 속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나요?

2. 8시간 동안 A군은 62종류의 욕을 15초에 한 번, B군은 33종류의 욕을 11초에 한 번, C군은 29종류의 욕을 37초에 한 번, D군은 22종류의 욕을 42초에 한 번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욕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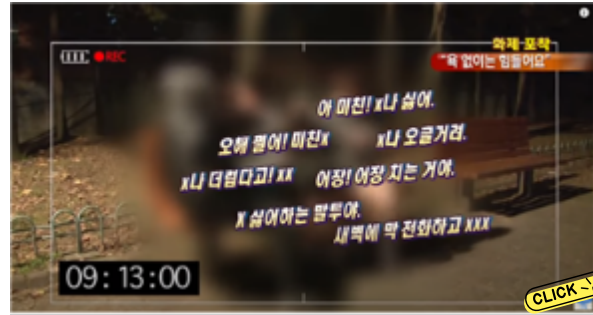
3. 우리는 왜 이렇게 욕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걸까요? 사회적/개인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 읽기 전 활동 ③ 학생들의 비속어 실태 확인하기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낸 두 동영상을 시청한 후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EBS <욕해도 될까요?>
<https://youtu.be/0FVli1MZ-Lo>



KBS 뉴스 [화제포착] <욕설, 비속어에 증독된 청소년들>
<https://youtu.be/62CAJTbaCdo>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링크 연결)

1. 영상 속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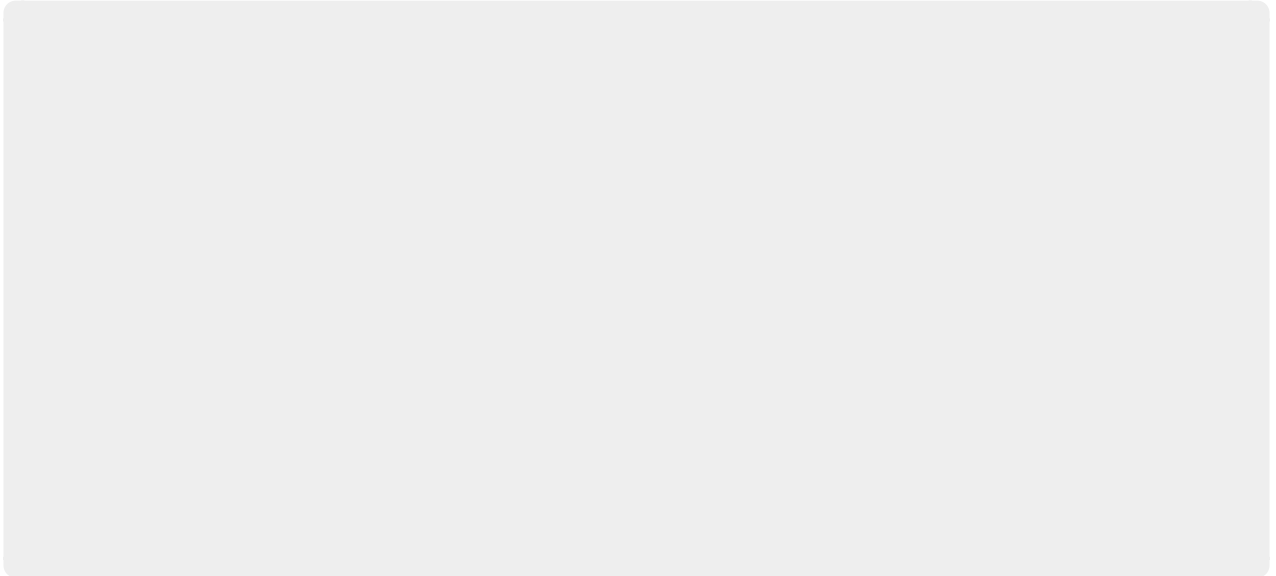
2. 8시간 동안 A군은 62종류의 욕을 15초에 한 번, B군은 33종류의 욕을 11초에 한 번, C군은 29종류의 욕을 37초에 한 번, D군은 22종류의 욕을 42초에 한 번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욕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3. 우리는 왜 이렇게 욕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걸까요? 사회적/개인적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2차시

■ 읽기 중 활동 ① 밑줄 치면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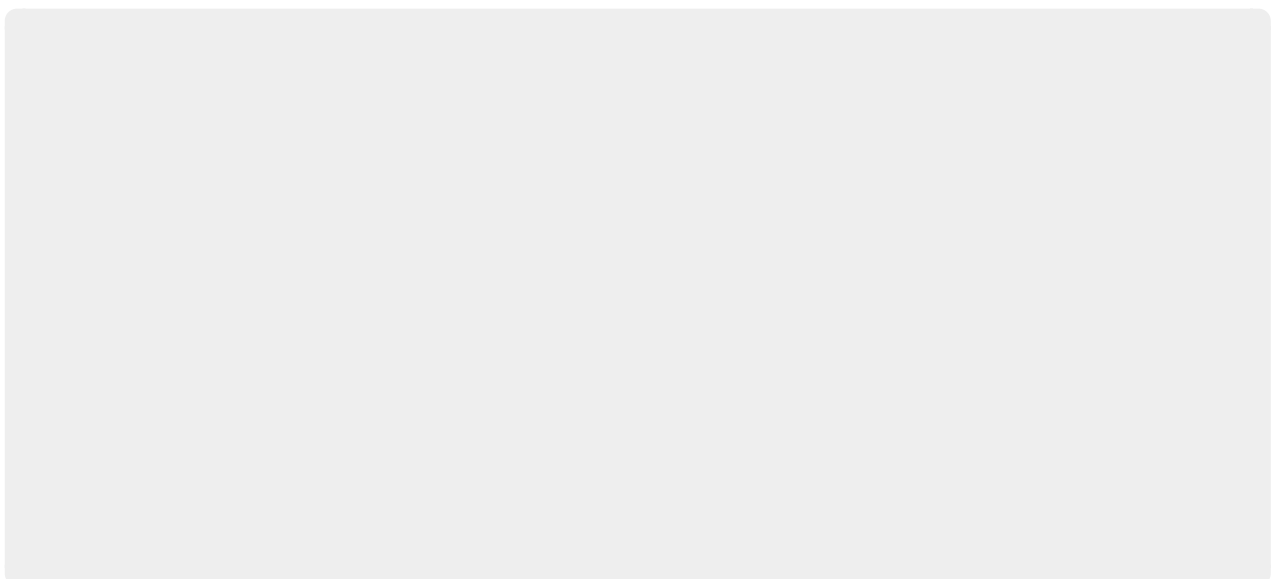
책에 나오는 비속어에 얽힌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많이 사용하거나 그 어원에 놀란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고 따로 메모해 봅시다.



3차시

■ 읽기 중 활동 ② 밑줄 치면서 읽기

책에 나오는 비속어에 얽힌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많이 사용하거나 그 어원에 놀란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고 따로 메모해 봅시다.



4차시

■ 읽기 후 활동 ① 비속어 5개 골라 빈칸 채우기

책에 제시된 비속어 가운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비속어 5개를 골라 그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 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봅시다.

	예전에 쓰던 의미	평소 이 단어에 대한 느낌 (언제 썼나요?)	어원 조사	어원을 알고 난 후의 느낌
1				
2				
3				
4				
5				

■ 읽기 후 활동 ② **모둠별로 토론하기**

5개의 단어 가운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속어를 하나만 골라 포스트잇에 써서 모둠별로 주어진 판에 붙이고 설명합니다. 돌아가며 서로 다른 비속어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읽기 후 활동 ③ **우리들의 모습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를 시청한 후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초등학생들의 ‘비속어 사용’ 동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2.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남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읽기 후 활동 ② **모둠별로 토론하기**

5개의 단어 가운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속어를 하나만 골라 포스트잇에 써서 모둠별로 주어진 판에 붙이고 설명합니다. 돌아가며 서로 다른 비속어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읽기 후 활동 ③ **우리들의 모습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를 시청한 후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나 KBS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재생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검색 후 첨부자료를 모아서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1. 초등학생들의 ‘비속어 사용’ 동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2.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남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5차시

■ 읽기 후 활동 ④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비속어 확인하기

[우리말 속에 담긴 이야기] ‘쥐뿔도 모른다’의 속사정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은 몸에서 자란 것들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빠진 머리털이나 자른 손발톱을 한곳에 모아 광에 보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남편과 똑 같이 생긴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자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진짜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다. 서로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이에 부인이 돌아오자, 진짜 남편이 부인에게 자신이 진짜 남편이라고 했지만 가짜 남편은 부인이 용변을 본 후 왼손으로 밀을 씻는지 오른손으로 씻는지 맞히는 사람이 남편이 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남편은 아내의 밀 씻는 손이 어느 쪽인지 본 적이 없어 우물쭊물하는 사이 가짜 남편이 자신 있게 왼손이라 말하자 부인은 진짜 남편을 쫓아내고 가짜 남편을 받아들였다.

쫓겨난 남편은 길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어느 날 남자의 앞을 지나던 스님이 그를 보고 혀를 끌끌 찼다. 그리고는 “당신 아내와 사는 놈은 본래 쥐인데 당신이 모아놓은 손발톱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것이요. 그래서 부인이 용변을 본 후 밀 씻는 것도 쥐구멍을 통해 다 본 것이요. 내가 부적을 줄 테니 가는 길에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가짜 남편에게 보여 주시오”라고 했다. 진짜 남편이 스님 말대로 했더니, 가짜 남편이 벌벌 떨며 쥐로 변했다. 그 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달려가 물어 죽였다.

이를 보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내에게 “이래도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소?”하며 지금까지의 사연을 털어 놓자 아내는 백배 사죄하면서 잘못을 빌었다.



그날 밤 술상을 들고 와 남편 앞에 앉은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와 그만큼 살았으면서도 내 좃과 쥐 좃도 구별 못한단 말이요?”하자 아내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남편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위 이야기에서 좃은 당연히 남자의 성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쥐 좃도 모른다.’는 말이 생겼는데, 아무리 속담이라도 남자의 성기를 입에 담기는 민망한 일이고 해서 좀 점잖게 말하기 위해 ‘좃’이 외형상 성기와 유사한 ‘뿔’로 바뀌어서 “쥐뿔도 모른다.”란 속담이 된 것이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 사용치 않는 유사한 속담 중에 ‘쥐 밀도 모르고 화대 친다.’는 말도 상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덤벼들다 낭패를 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서 ‘쥐 밀’이란 본래 ‘쥐 싹’이던 것이 점잖게 변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후략)

- 출처: 글로벌이코노미 홍남일 기자 (2015.09.14.)

책에서 나온 두 관용어의 어원을 알아보고 그 관용어를 대체할 말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쥐뿔도 모르는 게	빼도 박도 못하다
		
어원		
대체어		

■ 읽기 후 활동 ⑤ 그 외의 비속어 관용적 표현 알아보기

또 다른 관용적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고 대체어도 자유롭게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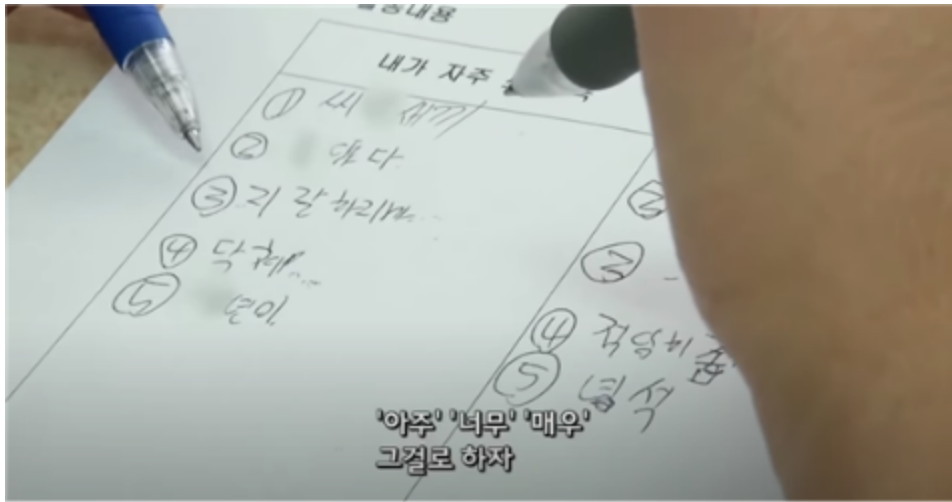
관용적 표현	의미	대체어
간뎡이가 붓다	간은 한의학에서 정신이나 마음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로 본다. 그런 맥락에서 작은 일에도 겁을 내면 ‘간이 작다’고 하고, 겁이 없고 대담하면 ‘간이 크다’고 말한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담한 것을 넘어서서 행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 간의 기운이 커지다 못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간이 부었다고 말한다.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간의 속된 표현인 간뎡이를 사용한다.	
노가리 까다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말한다. 명태는 종족보존의 수단으로 많은 알을 부화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알을 까는 명태의 습성에 빗대어 많은 말을 풀어내는 사람에게 노가리 깐다고 말한다.	
뒤로 호박씨를 까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해 남들 몰래 호박씨 껍데기를 먹었다. 그런데 호박씨 껍데기는 소화가 되지 않아 그대로 변에 섞여 나오게 되니 남몰래 했으나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남몰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내숭을 떠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쓸개 빠진 놈	남의 말에 따라 좃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빗대어 쓰는 말이다. 쓸개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겁이 많고 용기가 없으며 좃대가 없고 결단력이 낮다.	
뜯기 있다		

6차시

■ 읽기 후 활동 ⑥ 소통을 위한 고운말 고쳐쓰기

평소에 하는 말 (Before)	고쳐쓰기 (After)
야 이 개XX야! 너 오늘도 안 사오면 죽여버린다. 씨X 오래 기다렸다!	이 강아지 녀석! 오늘도 안 사오면 혼날 줄 알아. 상당히 긴 시일이 지났어.
야! 이... 씨XX야! 마빡에 심줄 다 뽑아서 기타줄로 튕겨분다. 빨리 전화 안 하나?	친구야! 이마의 힘줄을 뽑기 전에 연락주겠니?
오늘 숙제 안 가져왔다고 쌤한테 뺏겼는데 집에 가서 가져오래. 완전 망했다.	오늘 숙제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는데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셔. 큰일났네 정말.

■ 읽기 후 활동 ⑦ 대체어 찾아보기



참고 자료 - 말이 나를 바꾼다 <https://youtu.be/vuqtgKgtB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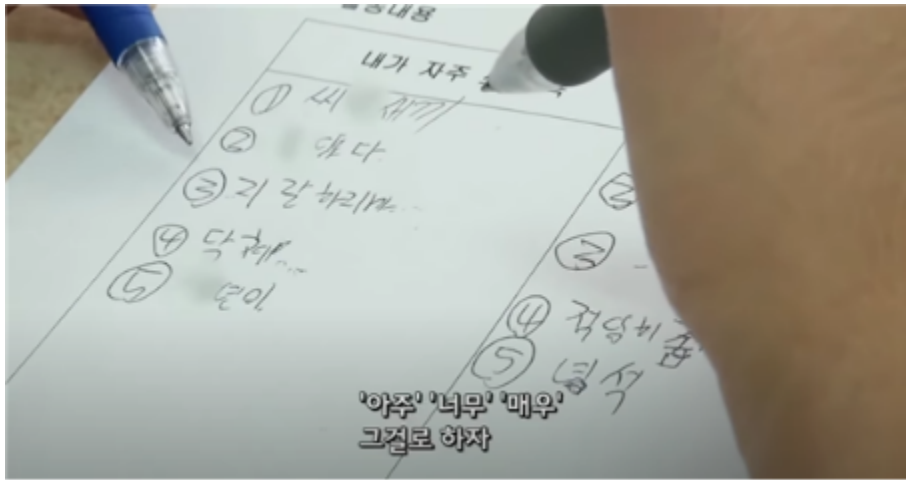
‘대체어’ 관련 읽기자료

어떤 사물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기 싫을 때 흔히 ‘좇같다’는 말을 쓴다. 물론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입모양은 이 말을 그대로 좇고 잇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런 ‘좇같다’는 격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비속어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주옥(珠玉)같다’는 말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주옥같은 말을 씀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좇같이’ 보이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욕을 하지 않고 말하려 하니 어색하기만 하고 문맥이 부정확했다. 이런 내게 부족한 것은 어휘라고 생각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습득한 어휘를 쓰고자 말을 천천히 하였고 대체어를 썼다. ‘좇같다’를 ‘꽃 같다’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체어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답답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고 대체어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친구들 덕분에 욕하는 버릇을 많이 고쳤다.”

- 출처: <B급 언어, 세상에 태클걸다> 권희린, 우리학교

■ 읽기 후 활동 ⑦ 대체어 찾아보기



참고 자료 - 말이 나를 바꾼다 <https://youtu.be/vuqtgKgtBEk>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유튜브 링크 연결)
경일고 학생들의 대체어 사례(13:20~) 부분을 보여 주고, 4차시 [읽기 후 활동 ②] 부분에서 제시했던 비속어의 어원을 모둠별로 찾아보게 합니다.

(참고) 4차시 ■ 읽기 후 활동 ② 모둠별로 토론탈기
5개의 단어 가운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속어를 하나만 골라 포스트잇에 써서 모둠별로 주어진 판에 붙이고 설명합니다. 돌아가며 서로 다른 비속어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대체어’ 관련 읽기자료

어떤 사물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보기 싫을 때 흔히 ‘좃같다’는 말을 쓴다. 물론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변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입모양은 이 말을 그대로 좃고 잇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런 ‘좃같다’는 격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비속어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주옥(珠玉)같다’는 말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주옥같은 말을 씀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좃같이’ 보이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욕을 하지 않고 말하려 하니 어색하기만 하고 문맥이 부정확했다. 이런 내게 부족한 것은 어휘라고 생각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습득한 어휘를 쓰고자 말을 천천히 하였고 대체어를 썼다. ‘좃같다’를 ‘꽃 같다’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체어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답답했지만 끝까지 경청해주고 대체어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친구들 덕분에 욕하는 버릇을 많이 고쳤다.”

- 출처: <B급 언어, 세상에 태클걸다> 권희린, 우리학교

■ 읽기 후 활동 ⑧ **우리만의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만들기**

다양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시행학교	프로그램	내용
경희여중	우리말 행동강령 포스터 제작	동아리 내에서 스스로 우리말 행동강령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음
	욕설 뜻풀이 사전 발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은어, 욕설, 인터넷 용어로 나누고 비속어의 실제 뜻과 대체 가능한 순화어를 찾아 패널 등에 적어 복도에 게시
대구 달서공고	말달리자 콘서트	<‘말’을 ‘달’서공고학생들이여 ‘이’쁘게 하‘자’>는 토크 콘서트로 학생들의 언어 사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아파트 관리원, 버스기사, 인근 여상 학생들을 초대하여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
안산 경일 관광고	바른말 나무 서약식	바른말을 쓰겠다는 자신들의 결심을 고운 말 나무에 지장과 서명으로 남기는 것
울산인터넷고	감사문자 보내기	언어를 순화하고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감사 문자 보내기 운동을 시행. 선생님과 부모님께는 존경과 감사의 문자를, 친구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문자를 보내며 감정을 순화하는 노력
충북 청운중	언어생활 반성수첩	지속적인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개선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언어생활 반성수첩을 쓰는 시간을 마련
	역지사지 역할극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방어자, 방관자의 구도를 학생들이 파악하기 위해 역지사지 역할극을 시행하여 언어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배움

우리 학교(동아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해 봅시다.

프로그램	내용



7차시

■ 영상 제작 ① ‘아무 비속어 챌린지’ 주제로 비속어 소개하는 PPT/영상 제작하기

책과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골라 학생들에게 언어 사용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PPT/영상을 제작해 봅시다.

(예시)

비속어 ‘막장’의 의미를 풀어 준 영상 <https://youtu.be/Pr8VuammSU0>

빠큐는 왜 욕이 된 걸까? 비속어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https://youtu.be/53y6-98b00I>

(참고 자료)

욕뜻 알리미 UCC <https://youtu.be/9HPpU6HdgP0>

8차시

■ 영상 제작 ② 모듬별/개인별 UCC 발표

모듬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제작한 UCC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감상해 봅시다.

(참고 자료)

MBC 특집 ‘말의 온도’ 예능 속 과도한 비속어 사용 <https://youtu.be/gxKbzUwuXAo>

한글날 특집 췌! 욕 없는 교실 만들기, 14일간의 이야기 <https://youtu.be/KVa3vJkFECc>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자료실 <http://kfta.korea.com>


7차시

■ 영상 제작 ① ‘아무 비속어 챌린지’ 주제로 비속어 소개하는 PPT/영상 제작하기

책과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골라 학생들에게 언어 사용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PPT/영상을 제작해 봅시다.

(예시)

비속어 ‘막장’의 의미를 풀어 준 영상 <https://youtu.be/Pr8VuammSU0> 

빠큐는 왜 욕이 된 걸까? 비속어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https://youtu.be/53y6-98b00I> 

(참고 자료)

욕뜻 알리미 UCC <https://youtu.be/9HPpU6HdgP0>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비속어 소개 영상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예시 영상을 보여 주고, 학생들이 내용을 참고하여 다양한 단어로 PPT/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PPT, 무비메이커, 키네마스터 등 기본 프로그램으로 제작 가능하며 제작 방법은 각자 찾아보도록 지도합니다.


상황에 따라 모둠별/개인별로 만들 수 있으며 수행평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차시


■ 영상 제작 ② 모둠별/개인별 UCC 발표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제작한 UCC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감상해 봅시다.

(참고 자료) *영상을 보고 관련된 부분만 참고 자료로 제시 가능

MBC 특집 ‘말의 온도’ 예능 속 과도한 비속어 사용 <https://youtu.be/gxKbzUwuXAo> 

한글날 특집 쫓! 욕 없는 교실 만들기, 14일간의 이야기 <https://youtu.be/KVa3vJkFECc>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자료실 <http://kfta.korea.com>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학생 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에서는 욕설 등 인성교육 특별수업자료들이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으로 수준이 나뉘어져 있으니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수업에서 사용하기 좋은 것들입니다. 수업진행 PPT까지 첨부돼 있으니 언어교육을 하기 전에 꼭 참고해 보세요.

(욕설퇴치 아이디어 우수 기획안 참고)